

교회소식

2016 포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자 (수 1:9)

시흥성문교회

- 2016년 포어 -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자"(수 1:9)
-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성도들과 각 가정에 생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남전도회 월례회 : 주일날 2부 예배 후
- 단기선교 참가자 모임 : 2부 예배 후 4층 교육관
- 장학금 시상 : 오후예배 중
- 고신 찬양제 연습 : 오후예배 후 5층 예배실
- 피택자 교육 : 찬양제 연습 후
- 새소식반 교사 강습회 : 28일(월)
- 주방대청소 : 29일(화) 오전 10시
- 전도 : 30일(수) 오후 1시 3층 교육관
- 교회 대청소 : 4월 2일(토) 오전 10시
- 전도 축제 : 4월 5일(화) 오후 3시부터(주최 : 여전도회)
- 중등부 친구초청잔치 : 4월 9일(토)
- 교육1부 총동원주일 : 4월 10일(주일)
- 노회 여전도회 성경퀴즈대회 : 4월 중 실시(범위 : 로마서)
- 교육관 3층에 점심식사가 준비 되었습니다

- 시흥성문교회의 소속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입니다.
- "양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예비하라"(창 41:36) 영적 흉년과 전쟁과 풍랑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 성도들의 신앙유익을 위해 매주 성경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테바도서관 사역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매일 기도회 : 새벽 5시, 밤 9시(수요일과 주일은 예배로 대신)

- 불우이웃구제 : 문지수
- 성도점심집대 : 이화순 / 유재현
- 떡 : 양선준 김은희
- 새가족 : 한금례



"바른교회 · 좋은교회"

바른 주리와 온 집안이 주도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으로 무장하시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비성경적인 신앙노선과 타협했던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도가 비 성경적인 요소들을 청교도들이 취하는 것이었기에 시련들은 이들을 '청교도들'(puritans)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미국을 건설하고 영적 대학살운동과 노예해방운동, 종교,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과 사회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종실, 성경중심, 신학사상은 바로 청교도사상의 핵심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종실, 성경중심 사상을 가지고 일주간 신앙의 산배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기 위하여 청교도의 후예들이고요.

시흥성문교회는 청교도 전통인 장로교회 정치를 따르며, '정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신학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학을 추구합니다.

-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 오직 은혜 (Sola Gratia)
-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 오직 믿음 (Sola Fide)
-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시흥성문교회는 하나님을 영기는 일과 교회에 부여된 귀중한 권위를 존중하고 치유하는 사랑(마 9:35)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 범위를 더 좁히시는 청교도들이 실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길을 걷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평일 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유치부년·초등부	오전 9시
주일 낮 예배	1부 7시 30분 2부 11시	중·고등부	오전 9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성년 1, 2부	오후 12시 30분
주요예배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교회 오시는 길



2016년 3월 27일

2016. 3. 27

교육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 9:35)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시흥성문교회  
RIGHT CHURCH · GOOD CHURCH

담임 목사 이근행  
선교사 김대중 서경삼 박빌립 이남재  
장로 김경섭 정태술  
강도사 이창훈 교육전도사 백선화 윤두례

14976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11-1  
교회 (031) 317-5883 FAX (031) 318-5883  
www.powersm.org E-mail: powersmorg@gmail.com

### 주일 낮 예배

1부 / 오전 7:30  
S.F.C. / 오전 9:00  
2부 / 오전 11:00

사 회 : 설 교 자

예배로의부름 ----- 다 같 이  
찬 송 ----- ⑤ 165 (155) ①② 167 (157) ----- 다 같 이  
교 독 문 ----- 십계명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159 (149) ----- 다 같 이  
기 도 ----- 이 후 현 학 생  
합 심 기 도 -----  
찬 양 ----- "하나님의 독생자" ----- 예루살렘찬양대  
성 경 ⑤ 마태복음 28:1-10 (신약 P. 51) 사 회 자  
1,2부 고린도전서 15:12-19 (신약 P. 282)  
설 교 ⑤ "죽음을 이기심" 윤두레전도사  
1,2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근 행 목 사  
봉 헌 ----- ⑤ 160 (150) ①② 165 (155) ----- 다 같 이  
광 고 ----- 사 회 자  
주기도 / 축도 ----- 설 교 자

####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사하사  
나는 너를 애급 땅, 홍 죄악된 강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위하여 다른 신들을 세게 있게 말라니라.  
제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대로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삼은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만물보다도 일컫지 말라.  
제사는 연식일을 가하여 가축의 시가라.  
제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니라.  
제칠은 간음하지 말라니라.  
제팔은 도둑질하지 말라니라.  
제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니라.  
제십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니라.

###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회 : 이근행 목사

예배로의 부름 ----- 다 같 이  
찬 송 ----- 161 (159) ----- 다 같 이  
기 도 ----- 정 계 순 집 사  
성 경 ----- 마태복음 28:1~15(신약 P. 51) ----- 사 회 자  
설 교 --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 이 근 행 목 사  
찬 송 ----- 165 (155) ----- 다 같 이  
장 학 금 시 상 ----- 다 같 이  
축 도 ----- 620 ----- 설 교 자

#### 매일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 봉사위원(근정성패)

	안 내 위 원	봉 헌 위 원	오후 예배	예배위원
1부	예배위원	예배위원	다음주일안내	박원일 김자정 2여
2부	양철곤 정계순 3여	임명숙, 정명옥, 김바다(4월)		
차량	박원규 강선모 김대형 김창길 문인권 박원일 방성근 양선준 양철곤 윤삼구 윤재근 이규철 이윤우 허강수			
구 분	주 방	2부 예배 기도	주일 오후예배 기도	
이 번 주	13구역(엄명화)	합심기도	정 계 순	
다 음 주	14구역(이민경)	김 경 섭	김 영 미	

#### 차량 시간표

구 분	대우	금호	태평	동아,성원	장곡	대동,청구	능곡
새 벽 예 배	4:46	4:45	4:43	4:50	4:40	4:45	4:45
유,초 등 부 예 배	8:40	8:41	8:43	8:45	8:40	8:45	8:40
중,고 등 부 예 배	8:50	8:51	8:53	8:45	8:40	8:45	8:40
주일 낮 2부 예 배	10:40	10:42	10:45	10:40	10:40	10:45	10:40
주일 오후 예 배	1:40	1:42	1:45	1:45	1:35	1:40	
수 요 저 녁 예 배	6:40	6:42	6:45	6:45	6:30	6:40	
주일 낮 2부 예배 후 1회, 점심 식사 후 1회 차량 운행함							

교회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Th.m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움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까지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이 시간들이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봄이지만 아직 꽃이 피지도 않았고, 하늘의 구름이나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고 즐기려면 서둘러 학교에 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어떤 목적이 있거나 서둘러서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과정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는 걸음이 여유롭게 주변경관과 바람을 즐기며 달리는 드라이브가 될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과 영적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심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목적만을 좇다보면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내 뜻과 기대대로 자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깊은 회의감과 슬픔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은혜를 깨닫고 배우길 원하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영적 유익도 하나님께서 도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아이들이 더디게 자란다고 할지라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다. 과정가운데 항상 고통과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주 나오지 않았던 장결자들이 돌아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도무지 의젓해지지 않고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던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 찬송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초등부 선생님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다!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 이창훈 강도사 -